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2월 6일(금)
(음력 12월 19일)
Пятница
6 февраля 2026 г.
№ 5 (1217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7일은 러시아 동계 스포츠 종목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유리 트루트네브, 코르사코브 항구 방문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이자 러시아 연방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코르사코브 항구의 물류기술단지 조성 기획을 시찰했다.

〈물류기술단지〉 기획은 코르사코브 항구에 기존의 시설을 재건하고, 신규 시설들을 건설하며, 기술적인 장비교체를 말한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립니 항구와 남부 하역 항구에 수심이 깊은 화물선들이 진입하도록 공사하여 연간 물동량이 440만 톤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항구의 대규모 현대화 공사는 202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국립수산물자원' 연방 국가 단일기업이 립니 항구의 시설들에서 정박시설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4분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로스모르포트(러시아 해상항구)' 국가 단일기업은 제반 시설의 현대화 공사와 수중 준설 공사를 시작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연방 교통부는

사할린주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 현대화 작업의 가속화를 승인했다. 올해 5월과 6월에는 립니 항구에 선박 접근 해상통로를 공사하고, 남부 화물하역 해역에서는 수중 준설공사를 시작한다. 이와 병행하여 접안시설 재건 및 방파제 건설도 진행한다. 사할린주는 심해 대외 항구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 항구는 북극항단 해상통로의 한 부분이 되어 이는 사할린주 경제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로스모르포트' 기업은 수중 준설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설선을 확보한 가운데 이 선박으로 해서 토사와 모래 제거를 포함해 복합적인 수력기술공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준설작업 중 굴착된 토사 운반 및 배출을 할 수 있는 특수 선박으로서 토사운반 바지선박 2척을 구매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는 남부 하역 구역의 접안 정박시설과 해안을 연결하는 차량 도로를 재건하는 것이다.

사할린주 도로교통부 장관 막심 조골레브

는 "항구의 종합적 현대화 공사로 코르사코브 항구는 대외 항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 항구에서 지속적인 선박의 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제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악천후로 인해 평균 40일 동안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데 수중 준설공사와 항구로 진입하는 교량 재건공사가 완료되면 흘수(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 10m까지의 선박들이 항구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전략적 운송 동맥인 북극항로가 있다. 우리는 이 해양운송통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캄차카와 사할린, 연해주 지역 전체가 북극항로를 따라 최대한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사할린은 당연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할린으로 더 많은 화물 유입을 쟁취할 권리가 있다. 수심이 깊은 안전한 항구가 있으면 물론 사할린 지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요약했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러시아 항공 관문>상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이 국립 <러시아 항공 관문>상의 연간 승객 100만 - 200만 명 이용 규모의 <우수 공항> 부문에서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단은 승객 서비스, 항공사 유치, 공항 제반 시설의 현대화, 홍보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202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는 여러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시상식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전국 공항 제반시설 구축 전시회(NAI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건설 현장에서 이민노동자 조사 실시

사할린주 이민국은 다른 경찰기관과 공조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건설현장에서 이민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범집행관들은 외국인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3명에게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한 이민자는 체류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두 명은 특정 직종 종사 금지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중 한 명의 특허는 취소됐고, 다른 한 명은 반복적 중대 위반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단축됐으며 이후 러시아 입국이 금지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새로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한 명이 병역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할린과 연해주에서 일주일간 수산물 2만 톤 수출

극동 지역의 생수품 해외 수출이 로스셀호즈나드조르(연방농수산물감독청) 전문가들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지난주 사할린과 연해주에서 423건의 어류 및 해산물 선적이 수출됐다. 총 수산물의 중량은 2만 700톤으로, 이는 일주일 전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부처는 총 653건의 수산물의 신선도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 중 사할린주에서는 236건이 발급됐다. 이 수산물들은 중국(534건), 한국(94건), 유럽연합(16건), 그리고 한국을 경유한 유럽(9건)으로 수출됐다.

사할린 해안 유빙에서 낚시꾼 70여 명 구조

비상대책부 직원들이 2월 4일(수) 돌린스크구역 스타로돕스코예 마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유빙 조난사건 구조작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빙에 떠내려간 71명의 낚시인들 모두가 육지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구조대원들은 총 71명이 갈라진 얼음의 틈들을 넘도록 구조했고, 부상자는 없었다. 구조 작전에는 22명의 인원과 11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며, 이 중 러시아 비상대책부 사할린주 관리국 소속 12명과 장비 6대를 동원했다."고 비상대책부가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의에서 1년 사업보고 발표

지난 1월 31일(토) 정오 12시 사할린한인연합회는 1년간 사업보고를 위해 연합회가 사무실용 및 행사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장소(유즈노사할린스크 가라즈나야 거리 2A번지)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지방을 대표하는 담당자 등 125여 명이 모였다.

회의 회장으로서는 김 세르게이, 서기로는 연합회 스미르니흐 지역의 이복자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2025년 회장으로서는 고영순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장은 2025년 연합회의 활동을 보고했다. 단체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추진과 더불어 단체 정관에 명시된 활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연합회에는 러시아의 여러 지역과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을 아우르는 자문위원회(위원장 박 알렉산드르, 모스크바 변호사)가 구성되어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재외동포청,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포함해 다양한 공식 기관에 9통의 서한과 호소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연합회 대표단은 2차례 한국 재외동포청을 방문하여 사할린 한인 권리보장,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2세 부모 사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다.

지난 10월에 사할린한인연합회

는 사할린동포문제로 사할린에서 실용학술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사할린주와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연합회 대표로 박 알렉산드르 변호사가 경제 문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사할린한인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러·한, 또는 사할린·한국 간 직항노선 문제를 제기해 알레리 리마레코 주지사,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한국 국회의원 등 비롯 여러 공식기관에 동포들을 대표해 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연합회는 처음 대한적십자사와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2세들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적십자사에서 감사를 표명했다.

작년부터 연합회는 '한마루'한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강사로는 원어민과 한국어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동포 현지인이 강의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제주도와 우호교류가 많은 연합회 지도부는 이번 연초에 처음 사할린동포를 사랑하는 제주도시민들로부터 단체 회원들을 위한 24절기, 손없는 날, 간지 등이 기록돼 있는 음력

달력을 받아 배포했다. 달력의 세관 통과를 위해 유명회 부회장과 유성철 회원의 노고가 많았다.

고영순 회장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연합회 일을 많이 돕고 있는 청년부의 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연합회 산하 1945-1947년 생 어르신들의 클럽도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영순 회장은 앞으로도 연합회가 하는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2026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라이사 사무국장은 오진하 감사가 준비한 재정보고도 낭독했다. 회의에서는 단체정관에 따라 회비는 회원의 의무라고 재삼 강조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모든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사업을 만장일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사업, 조직과 관련 여러 사항도 설명되었다.

사할린의 여러 지방들에서 다큐멘터리 '토박이' 상영을 돕고 있는 연합회는 2026년 1월에는 한국에서 이 다큐멘터리 특별상영(본지 1월 16일)을 기획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 회장은 방한과 특별상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제주도에서 영화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상영되었고 한국인들이 사할린동포



들의 역사를 잘 몰랐다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제주도 측에서 '토박이' 재상영도 요청했는데 시간부족으로 안 되었다. 안산 고향마을에서 3번 영화를 보여주었다. 첫 상영에는 영화에 출연한 전문가, 1세 어르신 등이 참여했다. 3번째 상영에는 특히 한국 인천, 화성 등지에서 온 사할린 영주귀국자가 많았다. 사실 부산, 양산, 김해, 남양주 등 영주귀국자들도 '토박이'를 보고싶다며 '왜 우리 지역에서 상영이 안 되었는가'란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김포 통진도사에서 상영도 만원을 이루었다.

이번 방문에서 고영순 회장과 김 라이사 사무국장은 지역 사할린영주귀국자회 회장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를 얻었다. 특히 김포 3군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회장들은 상영후 화합의 자리를 가져 고 회장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사할

린연합회 측에서 안산 상영을 도운 주훈춘 안산고향마을 노인회장, 김포에서는 연합회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박노영 어르신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의 숙박식과 교통비를 지원한 제주아스콘산업조합 양성안 회장을 비롯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재삼 표명했다. 이번 5명(연합회 고영순 회장과 김 라이사 사무국장, 영화 제작자인 안톤 도카 감독과 세르게이 하프로듀서, 이복순 우리말방송국 기자)의 사할린-한국 왕복비는 사할린한인연합회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찾은 하 세르게이 프로듀서와 도카 안톤 감독은 이날 사할린한인연합회 고영순 회장을 비롯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방문 감정을 나누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2026년부터 쿠릴열도에 관광세 도입

쿠릴열도에 관광세 도입으로 쿠릴열도의 제반시설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회 의원들과 지역정부는 2026년부터 관광세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사할린주 관광부 장관 아르좁 라자레브가 이를 주도했다고 '브콘탁테' 그룹을 통해 전해졌다.

아르좁 라자레브 장관은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지방 정부는 공식적으로 분류된 숙박시설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머무는 다른 숙박시설들도 납세자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관은 다른 지역들의 관광객들로부터 쿠릴열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중 많은 관광객들은 전통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데서 숙박하길 선호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여행객들도 지방자치체의 경제를 지원하게 된다.

관광세는 공공구역의 개선과 관광 명소 개발과 모두를 위해 좀 더 편리한 삶 생활 개선 기획에 사용할 예정이고, 관광세 활용 방안은 정부의 전 차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르좁 라자레브 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으로 운영 중인 숙박시설의 상황을 개선하고, 실제 여행객들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게 된다며 현재 납세자들 명부에 쿠릴스크 지역 24개시설과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 16개 시설들을 포함시켰다.

지방자치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관광과 숙박업> 대통령 국민기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2030년까지 이 기획으로 국내 총생산에 관광산업은 5%까지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광세 도입

관광세 도입은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의 관광세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사할린주 관광부 장관 아르좁 라자레브가 이를 주도했다고 '브콘탁테' 그룹을 통해 전해졌다.

아르좁 라자레브 장관은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지방 정부는 공식적으로 분류된 숙박시설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머무는 다른 숙박시설들도 납세자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Курильскому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у районам. Там власти решили включить в список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не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о классифицированные средства размещения, но и другие места, где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туристы. Артем Лазарев заметил, что интерес к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среди тур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едпочитают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е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стах. Благодаря новому решению, эт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также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 что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улучшение общественных зон,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ст и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всех. Именно так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налога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новая мера, по мнению Артема Лазарева, улучшит учет действующих средств размещения и позволит точнее оценить реаль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В реестр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сейчас включены 24 объекта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и 16 —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помогут достичь целей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нац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К 2030 году проект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вклад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в ВВП страны до 5%.

사할린 유치원, 100kg의 플라스틱 재활용센터에 전달

'말리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치원 직원들이 100kg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품으로 전달하여 초과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9개월간 유치원의 교사들은 재활용품 수거 시스템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원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가르치기도 했다.

수거 과정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진행된 가운데 유치원 곳곳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원생들과 어른들이 미리 뚜껑과 겉포장을 제거한 깨끗한 병을 가져와 한 달에 한 번 수거한 플라스틱을 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 것이 유치원 교직원들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이번 9개월간 유치원이 수거한 재활용품의 총중량은 100kg에 달했다. 이러한 양은 원생들과 그 가정을 참여시킨 유치원 교직원들의 의식적인 수거활동의 결과이다.

'말리쉬' 유치원생들에게 중요한 보상은 원생들의 푹푹하게 빛나는 눈빛과 깨끗한 향토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음료수나 물병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손질하여 특별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분리수거는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우며, 자연을 더럽히지 않는데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은가. 우리의 본보기는 가장 강력한 교육의 도구다."라고 유치원 체육교사인 율리야 포지차일로가 설명했다.

재활용품수거센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환경보호적 변형>국민기획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재활용센터는 예멜리야노와 거리 14번지에서 매일 오전 9시 - 오후 8시까지(휴식: 오후 2시-3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주민들에게는 보상으로 1kg 당 1루블리-10루블리를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 병, 액체 및 세제 용기, 플라스틱의 양동이와 대야, 용기, 골판지 상자, 책, 혼합 비닐, 유리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ад передал в переработку 100 кг пластика

Коллекти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Малыш" перешагнул символический рубеж, отправив на переработку 100 килограммов пластика.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воспитатели не только организовали систему сбора, но и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примере научили де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бережному отношению к ресурсам.

Процесс отлажен до мелочей. В саду на видных местах стоят контейнеры, куда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приносят чистые бутылк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няв с них крышки и этикетки. Раз в месяц отвозить накопленное во двор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детского сада уже стало привычным ритуалом. На этот раз общий вес сданного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вторсырья достиг отметки в 100 килограммов. Весь этот объем - результат осознанного сбора, к которому педагоги привлекли как воспитанников, так и их семьи.

Для коллектива детского сада "Малыш", как признаются сами педагоги, главная награда - сознательные глаза детей и чистота родного острова.

- Дети у нас уже знают: пустую бутылку из-под сока или воды нужно не выбросить, а подготовить и сдать в специальный контейнер. Они делают эт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8면에 계속)

<공백의 변형> : 그래픽에서 회화적 추상으로 사할린주미술박물관, 김 알렉산드라 화백 개인전 열려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김 알렉산드라 (1984년생)의 개인전 <공백의 변형>이 열렸다.

김 알렉산드라 화가는 2015년 '사할린, 체호브에 대하여'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창작적 재능을 드러냈다. 그녀의 고전적 주제에 대한 대담한 접근과 흡입을 데 없는 감각은 당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을 놀라게 했다. 사할린의 이름난 주명수 화백과 조성용 화백이 김 알렉산드라의 작품을 보고는 기뻐했다.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한인동포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공모전 데뷔 후 같은 해 연말에 미술박물관에서 그녀의 첫 개인전 <그림 그려봐>가 열렸다. 이미 그때부터 먹물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래픽 작가로서 그녀의 자신 있는 손길이 느껴졌다. 알렉산드라는 첫 전시회의 설명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썼다.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관람객 스스로 창의적 재능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그녀의 일부 작품들은 미술박물관 소장품이 되었고, '마스터와 마르가리타. 원고는 불타지 않는다'(2025), '공기역학'(2024) 등의 주제 전시회에도 참가했다.

지난 2월 4일(수) 전시 개막식에서 화가 본인은 참가하지 못했다고 알리며, 그녀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2016년부터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살며 계속 창작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시절과 청춘을 보내고 예술가로 성장한 사할린과의 연결 고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전문 미술계와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 알렉산드라 창작에 관심을 표한 사할린주문화부 노나 라브리크 장관도 개막식을 찾았다.

"김 알렉산드라는 21세기의 화가입니다. 그녀가 선보이는 모든 작품은 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기에 창작되었죠. 20세기에 태어났지만, 화가로서 우리 시대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시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와 소비에트 아방가르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녀의 추상적 회화의 느낌은 선명하고도 생동감 있으며, 역동적인 작품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단색에 가까운 작품조차에서도 이걸 보여줍니다. 그녀가 첫 개인전 설명글에 와실리 칸진스키를 언급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전시회를 기획한 이리나 말코와 큐레이터가 말했다.

<공백의 변형> 전시회에는 작가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주 미술박물관이 소장한 추상성과 연상성을 결합한 총 25점의 작품이 출



품되었다.

작품들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빛의 조각'이란 작품은 아주 따뜻하고 순수한 색채와 빛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부 작품은 제목이 없다. 미술관 측 설명에 따르면, 연상주의 화가인 알렉산드라는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과 작가의 공동 창작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관람객이 창작 과정에 참여하여 사물과 이미지의 직접적인 의미와 기능을 넘어선 새로운 연상과 연결을 찾도록 제안한다. 참고로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사샤 김'이라고 서명하고 있다.

작품은 생생한 감정을 얻기 위해 직접 봐야 한다. 러시아 미술동맹의 청년부 회원인 김 알렉산드라의 전시회는 주 미술박물관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부모 /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지나간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려라
나는 어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라

"평양 냉면처럼 습습한 시입니다. 평양 냉면 국물이라 함은 거의 맹물 맛이죠. 처음 평양 냉면 맛을 맞본 뒤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레옥'이 유명한데, 그런데 이 맛이 먹다 보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심심하긴 한데, 국물 맛의 끝이 제법 오묘하거든요. 늘 번호표를 뽑은 뒤, 줄을 서서 기다리며 먹어야만 하는 음식인데, 평양 냉면만의 매력이 있으니 모두들 늘 그렇게 줄을 서 가며 번호표 뽑고 난리통이겠지요. 조미료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그 겸손하고 정갈한 맛이 제대로 통했나 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사할린 분들은 평양 냉면을 잘 드시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좀 짜게 드시는 것 같았거든요. 연어알 요리도, 가자미 식혜, 청어 요리도 그렇고, 러시아 음식이 원래 좀 짠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짜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만. 평양 냉면은 아주 심심해서요. 입맛에 맞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출출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음식 얘기가 길었습니다. 아, 오늘 우레옥 다녀와야 하나요? 우레옥 같이 가실 분, 손!

'언어'와 이로 인한 '기억' 덕분에 우리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선사시대를 떠올릴만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찬란했던 시절을 더듬거나 때 아닌 위기의 시절 역시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보를 학교에서의 수업 덕분에 알고 있는데, 제 시선으로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배우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역사는 아니었겠지요. 교재가 있지도 않았을 테고. 하지만 외숙부가 어렸고, 육촌 당숙이 어떤 위인이며, 조상 중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은 결국 미묘한 DNA의 개성을 더욱 단단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습습한 시 한 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해를 새로 맞으면서야 새롭게 읽힙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걸 테니. 영상을 통해,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순 있겠으나,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는데, 원하는 학교 전공에 합격했다보니 아주 신이 난 모양입니다. 이제는 온갖 멋을 부리지요. 아내와 전 오랜만에 부모로서 아들 녀석을 청소년이 아닌 오히려 '어린'이로 바라본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고생고생해서 대학에 합격했다라기보다 이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한 걸음 내딛는 젊음의 계절로 성큼 들어선 걸 테니, 어쩐지 제 눈에도 아이가 태어나 처음 벅벅둥 걸음마를 시작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똑같았겠구나, 싶은 거지요. '아, 나처럼 대학 재학 중간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아닌 건데, 아무튼!'



(서울에서 허진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명하

관리번호	7063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명하	한자	金明河
이명	金淳七 金順七	성별	남
생년월일	1893-10-20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북도 종성 남산 세천		

공훈록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鍾城) 출신으로 어릴 때 2년간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12세에 부모를 따라 간도 태랍자(太拉子)로 이주하였고, 18세에 노령 수청(水靑)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포시에트·추풍(秋風)·하얼빈(哈爾濱) 등에서 지내다가, 24세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에 입대했다.

북로군정서 분대장으로서 부하 8명을 통솔하여 활동했고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당시에는 소대장으로 참전하였다. 그 후 노령으로 건너갔다가 이르쿠츠크에서 부대가 해산당하면서 울란 금광(金鑛)에서 광부로 일했다. 1923년 2월 금광에서 나와 전기회사 화부(火夫)로 종사했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공산학교에 입학하여 1925년 6월 졸업하였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노동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연해주 수청 파블로카 여업조합에 가입하여 1932년 1월에 조합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명하는 국내에 들어가 주요 교통시설을 폭파하려는 정치보안부의 명령을 받았다. 1932년 3월 25일 이학운(李學雲)·조용규(曹龍奎)·조재풍(趙載豊)등과 함께 함북 청진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학운이 단장, 김명하가 부단장으로 선임되었다.

압록강 철교 등 주요 교통시설을 폭파하고, 재만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은 군자금 700원과 폭파물 900개,

권총 4정, 탄환 105발 등을 가지고 청진으로 들어왔다. 그러던 1932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단장 이학운이 청진경찰서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았고, 해변에 묻어두었던 폭파물과 권총이 발견되어 일제 경찰이 조직 검거에 나섰다. 김명하도 4월 16일 오전 11시경 민가에서 체포되었다.

1932년 6월 17일 청진지방법원에서 김명하는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및 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5) 제9권 100면
- 독립신문(獨立新聞)(1921. 2. 25)
- 시보(時報)(1932. 6. 20, 6. 29)
- 조선일보(朝鮮日報)(1932. 6. 22, 6. 23, 6. 30, 7. 23)
- 조선신보(朝鮮新報)(1932. 6. 22, 6. 29)
- 매일신보(每日申報)(1932. 6. 22, 6. 29, 7. 6, 7. 11, 7. 30)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23, 6. 30)
- 신한민보(新韓民報)(1932. 7. 21)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2) 제2권 제4호 22~49면
- 가출옥집행제(假出獄執行濟濟)의 건 보고(함흥형무소장 : 1938. 5. 12)
- 가출옥(假出獄)의 건 구신(具申)(함흥형무소장 : 1938. 5. 5)
- 집행지휘서(執行指揮書)(경성복심법원 : 1932. 7. 28)
- 청진지방법원 제1심 판결(1932. 6. 2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5권 382~385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лександра Ким: «Преображение пустоты». От графики до абстракции в живописи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ткрылась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художницы, покоряющей Москву

Накануне получил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открытие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Александры Ким «Преображение пуст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мгновенным: «Иду обязательно!»

Молодая художница громко заявила о себе в 2015 году, представив работы на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 о Чехове». Ее смелый подход к классической теме и безупречное чувство меры тогда удиви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ценителей искусства. Призна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мастера Дю Мен Су и Дё Сон Ен радовались: в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региона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корейское имя.

Вскоре после дебюта в конкурсе,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шла ее первая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Порисуй». Уже тогда чувствовалась уверенная рука графика, виртуозно владеющего тушью. Как писала в аннотации к выставке сама Александра, ее целью было «достави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посетителям, поддержать интерес к искусству и подтолкнуть зрителя к поиску собственных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Работы Ким из фонд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озж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выставках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Рукописи не горят» (2025) и «Аэродинамика» (2024).

Об этом напомнили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вшемся 4 февраля. Самой художницы не было: с 2016 года она живёт и работает в Москве, 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связь с Сахалином, где прошли её детство, юность и состоялось стан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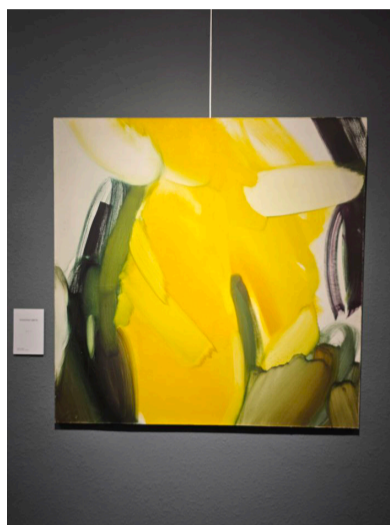


ление как художника.

Выставка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любителей искусства.

«Александра Ким — художник XXI века. Вс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работы созданы в новом тысячелетии. Родившись в XX веке (1984 г.р.), как художник она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в наше многогранное и сложное время. Наследуя традиции русского и совет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она выбирает свой путь, где нефигуративное искусство предстаёт в ярких, сочных и динамичных работах — даже если они почти монохромны. Недаром в аннотации к своей первой выставке она упоминает Василия Кандинского», — рассказала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Ирина Мальков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ображение пусто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25 работ из мастерской автора и музейных фондов, сочетающих абстракцию и ассоциа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впечатляют. Лично меня покорили «Осколки света» — чистейший тёплый цвет и свет, буквально притягивающие взгляд. Часть картин не имеет названий. Как пояснили в музее, Александра, как художник-ассоциативист, считает важнейшим сотворчество зрителя и автора. Она предлагает зрителю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цессе, находя новые связи между предметами и образами, выходящие за рамки их прямого смысла. Кстати, свои работы художница подписывает просто — Саша Ким.

Картины нужно видеть вживую,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обственные, неповторимые эмоции. Выставка Александры Ким, члена молодеж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иктория Бя

АСК подвела итоги работы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31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отчетное собрание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боты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На собр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13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йон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АСК.

Отч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Ко Ен Сун (Светланы Яковлевны) был лаконичным. Напомнив, что она была избрана на этот пост в янва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а представила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К в 2025 году. Ассоциация была создан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й, закрепленных в ее уставе, и продвижения поправок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 АСК действует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 адвокат Александр Пак, Москва),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СНГ.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ция направила девять обращений и запросов в различные официальные инстанции, включая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К дважды встреча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где обсуждали вопросы защиты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расширения списк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грамм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клю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не успев вернуться).

В октябре АСК выступ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НГ.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АСК Александр Пак по инициативе АСК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нициативы, проекты, результаты».

АСК была первой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нявшей вопрос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в частности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ореей, направ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бращения губернатор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ю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у Носову, депутатам парламента РК и другим официальным

лицам.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АСК впервые начала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программе посещ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поездки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шли успешно, за что от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оступ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 АСК работает шко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анмару». Занятия ведут два специалиста: носитель языка и дипломированн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лушатели курсов довольны качеством обучения.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члены АСК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от друзей с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лунные календари, которые традиционно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 Ен Сун высоко оценила деятельность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К, которое активно помогает в работе ассоциации и занимается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поддержку пожилых людей. Также при АСК успешно действует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1945-1947 года рождения).

На собрании вновь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огласно уставу, уплата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является обязанностью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рание дало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К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Отдельным вопросом повестки стали специальные показ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материал о поездке опубликован в газете за 23 января 2026 г.). Участники поездки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метил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принимающей стороны. Фильм, как и везде, произвел на зрителей силь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Чеджудо его смотрели южнокорейцы,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знающие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рители были глубоко тронуты и просили о повторном показе, но из-за плотного графика это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Показы такж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Ансане и Кимпхо.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узнав о специальных показах, просили привезти фильм к ним, но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у делегации не было.

Продюсер фильма Сергей Ха и режиссер Антон Дока выраз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уководству АСК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поездки и специальных показ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иктория Бя

Провин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отправила в Россию 800 учеб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издала и направила в Россию 800 экземпляров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Москвы.

Как сообщил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в книг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основ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 и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краткие сведения о продукции местных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Как ожидают инициаторы акции, пособия позволят россиянам не только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 и заранее узнать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

ностях и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Это регион расположен на юго-востоке Южной Кореи, выходит к Восточному (Японскому) морю, на его побережье немало крупных портов, включая Ульсан, Пхохан, а власти края прилагают большие усил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и особенн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регионом РФ.

Учебники уже переданы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Москв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а, где их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ых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регулярных занятиях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есня из "К-поп-охотниц на демонов" получила премию Grammy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поп-музыки, так популярные во всех уголках мира, сумели одолеть и рубеж престижной награды Grammy. На прошедшей 1 феврал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песня, написанная для визуальных медиа"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а композиция Golden из аним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К-поп-охотницы на демонов".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прочили этой песне большой успех, учитывая ее популярность во всем мире. На пике популярности она занимала первые места в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чартах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Данная награда ознаменовала прорыв для всей К-поп индустрии. Композиции различных К-поп коллективов, включая суперпопулярный бойзбэнд BTS,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тендовали на Grammy, но до сих пор н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награду.

Golden из "К-поп-охотниц на демонов" смогла одолеть и эту вершину. Учитывая, что номинация "Лучшая песня, написанная для визуальных медиа"

присуждается авторам, то лауреатами стали Ли Чжэ, TEDDY (Ли Ю Хван), 24 (Квак Чжун Гю) и IDO (Нам Хи Дон).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поздравил с победой 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написав в соцсети, что они "вписали новую главу в историю К-поп".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обещал продолжать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корейских деятелей эстрады,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на более широкой сце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попа также претендовали на Grammy в разряде "Лучшая парная/групповая композиция". Среди номинантов была Розз из коллектива Blackpink, которая вместе с Бруно Марсом исполнила ставшую вирусной песню "APT". Однако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награда досталась Синтии Эриво и Ариане Гранде за композицию Defying Gravity.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ИД РФ: Отношения РК и России зависят от Сеула

Дальнейши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РК определяются вопросами соблюдения Сеулом «красных линий» в вопросе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тветах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на вопросы СМИ.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строиться исходя из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и.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касается отказа Сеула от следования антироссийской санкционной кампании Запада. Отношения Москвы с Сеулом ухудшились из-з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предыдущих властей РК, - сообщили в российском МИД. Нов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декларирует настрой на нормализац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Москвой, но увязывает свои практические шаги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благоприятных внешних условий, - отметили в МИД Росс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поставил задачи на 2026 год

2 февраля на новогодн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мментируя работу целевой группы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участия госслужащих и военных в незаконных действ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введ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Мин Сок сообщил: «Расследование завершено, результаты будут обнародованы до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отношении объедин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Ким Мин Сок поясн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искусственно форсировать или тормозить слияние конкретных регионов. Вероятность успеш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ак минимум двух территорий высока,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моделирование возможных бюджетных затрат. Касаясь проблемы связей политики и религиозных сект, премьер резко раскритиковал режим Юн Сок Ёля, назвав его наиболее вопиющим примером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севдорелигиозных групп в политику.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решительно искоренить практику извлечения личной выгоды под прикритием религии.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референдум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иняты

2 февраля на открытии внеочередной се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пикер У Вон Сик призвал немедленно принять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ферендуме. Он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отсутств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не должно блокирова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ую реформу, и потребовал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у над законом до середины февраля, а именно до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закона лишает права голоса зарубеж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в Корее, что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не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ещё в 2014 году. Спикер также обозначил приоритеты парламента: создание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ыночного порядка,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укрепление соцзащит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й лидеров фракций 3 и 4 февраля парламента проведёт с 9 по 11 февра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политик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вопрос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абилизирует цены перед праздником Соллаль

Январская инфляция достигла целевых 2%, однако высокие цены на ряд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по-прежнему сохраняютс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РК Ли Хён Иль, выступая 3 февраля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ю. Он поручил обеспечить выполнение мер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перед Новым годом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возможному снегопаду и морозам,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еребоев с поставками рыбной и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Также он призвал следить за ценами на нефтепродукты на фоне волатильности мировых цен из-за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Ирана. С 29 января в стране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праздничных распродаж со скидками до 50%.

Samsung возглавил рейтинг брендов РК

Samsung возглавил рейтинг брендов РК, набрав 74,1% голосов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который провела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телерадиорекламы (КОВА-СО). В опросе участвовали 3.019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наиболее ярко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трану, лидирует Samsung, набрав 74,1% голосов. За ним расположились LG, Hyundai,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и SK. В категории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рекламных моделей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певица и актриса Айю (IU).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также вошли бывшая фигуристка Ким Ён А, телеведущий Ю Чжэ Сок, актёр Пак По Гом и футболист Сон Хын Мин. Главным критерием при выборе модели для рекламы потребители назвали «соответствие образа модели бренду и продукту». Этот фактор оказался важнее популярности знаменитости.

RKI

КНДР готовится к новому крупному параду

На фоне ожидаемого проведения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начале-середине февраля спутниковые снимки зафиксировали ак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военному параду.

Как сообщил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ртал 38 North, опираясь на кадры частной спутниковой компании Planet Labs, на тренировочной площадке замечены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т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хождение парадным строем. На снимках также различимы фигуры людей, выстроившихся в символы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 серп, молот и кисть.

По данным наблюдателей, именно полигон Мирим традицион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КНДР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крупным парадом: там заранее концентрируются личный состав и техника. Площадка по размерам очень похожа на центральную площадь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в Пхеньяне, где проводятся парады и прочие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тметим, что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путники фиксировали на площадке сотни военных грузовиков.

При этом пока неясно, будут ли на предстояще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казаны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ооружения, включа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ъедин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

ков штаб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Сон Чжу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ризнаки подготовки видны как на аэродроме Мирим, так и на площади Ким Ир Сена, однако,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выглядит скорее как подготовка на гражданском уровне". Это может означать участие не регулярной армии, а Народно-крестьянских отрядов самообороны - аналога резерв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которые КНДР нередко выводит на парады.

Ожидается, что торжества будут приурочены к IX съезду партии - ключевому политическому событию, определяющему курс страны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Точная дата его открытия официально не объявлена, но эксперты в Сеуле ранее считают, что съезд пройдет в первой-второй декаде февраля.

В конце января в КНДР уже прошли городские и уездные партий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збранию делегатов - стандартный этап перед созывом съезда.

38 North отмечает, что если Пхеньян реши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н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или пров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спытания вооружений, открытие съезда может быть сдвинуто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В Сеуле призвали посылать россиян в КНДР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двинули идею привлеч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к туристическим поездкам в КНДР - в качестве возможного канала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выступила граждан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Химманнзиль" (в переводе - "надежда на завтра"). Речь идет о россиянах из числ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как и других корейцев СНГ, называют "корё-сарам".

Инициатив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днях на семинаре "Вонсан-Кальма: поиск нового пути дл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Сеуле, в з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депутат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Ён Сона.

Организация предложила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Мир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Вонсан-Кальма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росси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Вонсан-Кальма" - это открытый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КНДР крупный курортный комплекс,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прием до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н построен с прицелом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а также для отдыха граждан КНД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нимает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формате групповых туров через российск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 этом визиты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стаются невозможными на фоне жесткой линии Пхеньяна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Химманнзиль" предлагает задействоват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прежде всег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ё-сарам - для посещения курорта и выстраивания неформальных кооперационных каналов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проекта организац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резентацию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российском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заявили, что активизац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риводит к тому,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казывается "оттесненной от информации и канал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что, по их мнению, может ослаблять влияние Сеула на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КНДР.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Восток Интур" уже запустила и продает турпакеты на курорт "Вонсан-Кальма" на летний сезон с июня по сентябрь.

Предлож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лучило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семинаре,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держать подобные инициативы. Глава Отдел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инобъединения Ким Ги Хёк заявил, что туризм не подпадает под санкцио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и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им из немногих проектов, реализуемых в условиях фактического разрыва меж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По его словам, к проекту проявляют интерес Южная Корея, КНДР и США, а сама иде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о взаимовыгодная.

Отметим, что ранее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Чон Дон Ён заявлял, что ведом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ариант движ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НДР через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ладающих паспортами третьих стран. В ходе служебного брифинга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даже предложил сделать 2026 год "годом посещения Вонсан-Кальма" для таких категорий туристов.

Вместе с тем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в такой форме перспективы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ограничены. Если кто-либ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ражданства будет позиционировать себя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жной Кореи", т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власти КНДР просто не разрешат так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ехать в страну даже в целях отдых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хеньян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гнорирует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и неоднократно требовал от Южной Кореи "не беспокоить" с подоб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Если же инициативы такого стиля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публичным освещением, как предлага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 проведением презентац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о это вообще обречено на провал. В этой связи инициатива скорее выглядит как попытка предлагать хоть какие-то идеи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все канал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прекраще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В Южной Корее обвинены 52 топ-менеджера по делу о сговоре цен

Прокуратура Сеула заявила о предъявлении обвинений 52 руководителям 12 компаний, подозреваемым в масштабном ценовом сговоре и манипулировании госзакупками. По оценке следствия, общий объем нарушений составил около 10 трлн вон (6,84 млрд долларов) - в сферах, напрямую влияющих на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граждан: производстве муки, сахара и электрооборудования.

В мукомольном секторе без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переданы в суд дела на 20 менеджеров шести крупнейш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Daehan Flour Mills, Sajo Donga One, Samyang, Daesun Flour Mills, Samhwa Flour Mills и Hantop.

Следствие считает, что с января 2020 по октябрь 2025 года компании согласовывали масштабы и сроки изменения цен, фактически разрушая рыноч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Стоимость такого сговора оценена в 5,99 трлн вон; за этот период цена муки выросла на 42,4%.

На рынке сахара прокуратура выявила сговор между компаниями CJ CheilJedang и Samyang в период с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по апрел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Его стоимость

оценена в 3,27 трлн вон, при этом цены на сахар выросли на 66,7%. Два топ-менеджера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и затем обвинены; еще девят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ривлечены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без ареста.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10 компаний, включая Hysung Heavy Industries, HD Hyundai Electric и LS Electric, обвиняются 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тендеров на постав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Korea Electric Power Corp. С марта 2015 по сентябрь 2022 года они незаконно распределяли между собой контракты на сумму 677 млрд вон. Четверо руководителей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еще 15 - обвинены без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Прокуратур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дело затрагивает базовые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ят домохозяйства и малый бизнес, и обещает добиваться строг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иновных.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казался по поводу этого скандала, похвалив следователей и прокуроров за бдительнос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Юрий Трутнев посетил Корсаковский морской порт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ектом создания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на баз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Проект «Логистический технопарк» предполага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ю существующих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морском порту, а также техническое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заход грузовых судов с большей осадкой в Рыбный порт и Южный погрузочный район, ч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грузооборот до 4,4 млн тонн в год.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артовали в 2024 году.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вед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ича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Рыбного порта ФГУП «Нацрыбресурс». Этот этап работ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2026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стартуют модернизац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ФГУП «Росморпорт» и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Федеральный Минтранс одобрил инициати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ускорении темпов модернизации морской гавани. Уже в мае-июне этого года стартуют работы по дноуглублению акватории Южного погрузочного района и Рыбного порта с подходным каналом. Параллельно будут вестись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ича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лнозащитного мола. Перед регионом стоит задача создать глубоководный порт-убежище, который в перспективе может стать частью Трансарктического морского коридора. Это откро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 по дноуглублению ФГУП «Росморпорт» приобрел земснаряд. Судно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сложные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е работы, в том числе по очистке дна от ила и песка.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ка двух грунтовозных шаланд —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суд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сброса грунта, извлеченного при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ах.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планируются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соединяющего причалы Южного погрузочного района с берегом.

«Комплекс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зволит Корсаковскому морскому порту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порта-убежища. Здесь появит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удов. Сегодня в среднем до 40 дней в году флот простаивает из-за непогоды. Также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одходного моста в морскую гавань смогут заходить суда с осадкой до 10 метр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У нас есть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магистралью. Мы этот транспортный коридор развиваем. И целый ряд территорий — Камчатка, Сахалин, Приморье — соревнуются за т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максимальный объем грузов на траектории СМП. У Сахалина, очевидно, есть право бороться за свою конкурентность, добиваться того, чтобы больше грузов приходило сюда. Если будет глубоководный порт, причём защищённый, то, конечно, количество грузов, приходя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гиона, будет больше», — подвел итог Юрий Трутнев.

РВБ построит на Сахалине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лощадью более 30 тыс. кв. м

Компания РВБ (Объединённая компания Wildberries & Russ) в статусе резидент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Сахалин» построит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ощадь будущего комплекса составит более 30 тыс. кв. м. В начале 2026 года компания начнет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дас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связано с улуч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в более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товары. У компании есть отработанная система п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Работает она уже широко. Опыт работы, логи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зволяют добиться результатов именно в ускорении постройк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Компания РВБ на ПМЭФ-2025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на ВЭФ-2025 — с КРДВ.

«Наша цель —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о-настоящему комфортны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для жизни. Нов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компании РВБ на Сахалине сократит логистику между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ью России. Это позволит жителям получать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товаров значительно быстрее. Мы рады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всесторонне поддерживаем инвестора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важн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огоцентр будет оснащен современным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ми системам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более бы-

струю сортировку товаров.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учетом эколог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критериев для минимизации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природу и создания безопасных и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уду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а ТОР позволит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с применением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еференци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на Сахалине не только сократит время доставки необходимых товаров для жителей, но и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местны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поставля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 всей стран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иректор КРД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ария Гришинкова.

Развитие лог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 один из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иоритетов компании. По соглашению с КРДВ в рамках режима ТОР компания РВБ ве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в Чите и Благовещенске. Также уж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логоцент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РДВ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панией РВБ продолжает системную работу по увеличению логист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ведется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ском и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ях. Также по соглашениям с КРДВ инвестор реализует 2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цент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и Архангельской областя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е режимы ТОР и АЗРФ создают услов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доб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КРДВ по сопровожд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ергей Скалий.

По данным КРДВ, на ТОР «Сахалин» бизнес реализует 93 проекта, 22 из которых введены в работу.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вложено более 45,8 млрд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230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более 3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Резидентам ТОР доступны знач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и преферен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нулевые налоги на землю первые 3-5 лет, на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первые 5 лет, сниженные ставки по указанным налогам с 6-го по 10-ый год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й и других видов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лидирует по итогам третье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Каждо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региону есть, что показать и чем гордиться. Это показывают фильмы, которые отправляют участники нашего конкурса. Конкуренция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есть. Каждая территория старается, чтобы именно сюда приехало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В их привлечении есть и заслуга конкурса.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е всего фильмов на оценку жюри пришло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Сахалину и Курилам», — сказал Юрий Трутне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лидером по итогам третье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ступивших видеоработ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ФО и Арктики. Больше всего заявок — 177 фильмов —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направили именно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Сахалину и Курилам. Фильмы, снятые в регио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каждой основной номинации конкурс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оминации «Аркти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а такж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Тропами Победы».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лидирует по количеству фильмов, снятых для специ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Тропами Победы». Всего в номинацию отобрано 39 видеоработ участников. Из них 11 фильмов —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местам боевой слав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и этом 7 фильмов сняты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ша страна отмечала важную дату —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ие со дн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ши отцы и деды отстояли мирное небо у нас над головой. Мы должны об этом помнить. Помнить — не только знать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и страны, но еще и посещать места боевой славы», — считает Юрий Трутнев.

Благодаря большой работе, проведенной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 созданию на Шумшу уникального музей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посвященного решающе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это место стало знаковым и привлекает все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хотят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истории 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защитников Родины. Фильм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снятые на Шумшу,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пуляризации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утешествий,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Для этого сейчас создаются все услов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жюри конкурса уже приступило к оценке фильмов. До конца февраля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в основных и специальных номинациях, а также обладатель главного приза в 3 млн рублей.

Фильмы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получил фильм приз или нет, будут пополнять интерактивную карту путешествий на сайт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 ней размещено более 400 маршрутов на основе фильмов, поступивших в первом и втором сезонах конкурса.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III сезо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Арктик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состоится в марте 2026 год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 НКО «Фонд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Женское Движение «Единой России» объединило три тысячи жительни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решения социальных задач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орум «Женское единство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женским движением «Единой России». Участницы мероприятия обсудили ключе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Женское Движение «Единой России» начало работ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2 году. Сегодня в его ряда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активисток,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начинания.

— Мы искренне считаем, что женщин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являются главной движущей силой региона. Это не просто слова. Женщина гораздо тоньше чувствует ситуацию, улавливает настроение людей и более эмоционально реагирует на внешние вызовы. Она всегда готова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и примеров тому множество.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объем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работы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лежит на плечах женщин. Это и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и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помогают людя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обровольцы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на фронте: производя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окопные свечи, готовят сублимир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Всю эту колоссальную работу выполняют именно женщины. Я хочу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ваш труд,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В ней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Они оказывают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будущим мама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поддержке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Женщины отправляют бойцам посылки с предметами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теплыми вещами, пишут письма со словами поддержк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семьям военных.

—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ы наблюдаем взросление форума, его качественное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значимой.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активное включение женщин в 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это правильно. Женщины интуитивно понимают эмоциональн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проектов, которая не всегда очевидна для мужчин, — отметила Татьяна Манак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цы движения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и подготовили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роек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требностями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 «Женское Движение «Единой России» создано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в 2022 году, но с тех пор оно существенно развилось. Изначально наша задача заключалась в привлечении членов партии, сейчас же к нам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союзницы, разделяющие принципы 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итогам сегодняшн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мы сформируем резолюцию и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исполком. Действующие проект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вигать, а в проводи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Сейчас мы завершаем нынешний форум и начинаем подготовку к масштабному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в мае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и соберет около 700 человек, — подчеркнула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Участницы движения не только занимаются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ектами, но 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уществует та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ткрывает перед женщинам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Даже те, кто находится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стремятся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е тольк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и всей области,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Швайк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려인 청년, 호텔 서비스 전문 인력으로 첫발

재외동포청,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청년 대상 '직업연수 수료식' 개최 한식조리·제과제빵 및 호텔 현장 실무 등 120시간 전문 교육 이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려인 청년 맞춤형 호텔 서비스 직업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월 30일 엠블던 호텔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연수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간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고려인 청년 40명(해외 27명, 국내 13명)이 참여해 이 중 38명이 최종 수료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식 조리과 제과제빵 분야에서 각각 120여 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80여 시간의 한국어 교육도 함께 이수했다. 이에 더해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식음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호텔 서비스 실무 교육을 받았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남산 등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의 「역사적 특수동포 보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코딩과 산업디자인 분야 연수에 이어 고려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맞춤형 직업연수 과정이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고려인 청년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와 모국과의 유대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수료식에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과 육광심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연수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기성 국장은 이번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오늘의 성공스토리가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응원하겠다." 라고 했다.

이원영 학장은 무사히 연수를 마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번 연수가 여러분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수생 대표로 러시아에서 온 스티타노바 디아나 학생은 "연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한식의 정성, 배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매우 값지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체계적인 지도로 자신감을 키워주신 교수님들과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재외동포청과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거주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과 동포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연계해 우수한 동포 청년들이 국내에서 학업·취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세계한상대회, 이제 한상이 직접 키를 잡는다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민간 주도로 운영 규정 개정

전 세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재인 '세계 한상대회'가 정부 주도의 운영 틀을 벗고, 한상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관으로 1.29(목) 개최된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민간 자율성 확립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회 운영 규정이 채택되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 결정이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대회의 주권을 한상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실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에서 바뀐 새로운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한상대회를 이끄는 핵심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운영위원 중에 선출하게 된다. 그간 재외동포청장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직이 민간 운영위원에 이양되면서 한상이 직접 이끄는 대회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도 한상들이 직접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전시회를 주최하는 동포경제단체 혹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 기업전시회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기업전시회를 관련 분야 노하우를 갖춘 동포경제단체 등 전문 기관에 위탁,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세계한상대회 내 한상자문위원회와 미래혁신위원회를 신설, 대회 내 자문 및 제언 역할 기능을 부여한다. 이로써 원로 및 차세대 동포경제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동포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말 회의를 열고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동포의 창] 김병학 관장 "고려인 160년, 단절 아닌 축적의 역사"

'고려인 역사 지킴이'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관장 "한글 문학의 마지막 보루 지킨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광주=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2일 찾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자리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내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은 유물 보존을 위해 난방을 하지 않아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연합뉴스와 인터뷰 내내 김병학(60) 관장의 목소리만큼은 뜨거웠다.

월곡고려인문화관 명칭인 '결'은 고려인들이 겪어온 역사의 흐름과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정신을 상징한다. 고려인의 아픈 역사(숨결)를 기억하고, 현재의 이웃으로서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 관장은 "이곳은 고려인의 고통을 나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삶을 지켜왔는지를 기록한 증언의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고려인 역사 지킴이'로 불리는 김 관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한 후 1992년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향했다. 예정했던 1년의 체류는 현장의 삶과 역사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져 25년이 됐다.

그는 고려인 최초의 강제 이주지인 우수토베 등지에서 한글 교사로 활동하며 모국어 교육에 헌신했다. 이후 현지 한글 신문인 고려일보 기자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2017년 귀국한 그는 2021년 개관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의 초대 관장을 맡았다. 중앙아시아 전역을 돌며 수집한 생활 유물 등 1만 2천여 점의 사료를 토대로 고려인의 항일 독립운동과 강제 이주사를 전시와 교육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그가 수집한 고려인 극작가 한진의 원고 등 23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201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관장은 "고려인 160년 역사는 단절이 아닌 축적의 역사"라며 "우리가 이 기록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정착한 고려인 후손들도 뿌리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층 상설전시실은 고려인 이주 160년의 흐름을 '첫 번째 이주', '연해주 이주와 항일운동', '문화운동', '강제 이주', '강제 이주 극복'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보여준다. 1863년부터 시작된 초기 이주 장면은 러시아 학자들이 남긴 사진들로 생생하게 재현됐다.

김 관장은 "힐벗은 이주민도 있었지만, 연해주에서 자리를 잡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던 시기도 있었다"며 "고려인 역사는 비극의 반복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일궈온 주체적인 개척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전시의 또 다른 축은 독립운동이다. 1920년 철혈광복단이 무기 자금을 마련하려 일본 은행 호송차를 습격한 '간도 은행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에 관해 김병학 관장이 설명하고 있다. 2026. 1. 12. seva@yna.co.kr

자금 탈취 사건'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김 관장은 "당시 고려인들에게 무장투쟁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며 "단순한 사건이 아닌 독립운동사의 정수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장관에 대해서도 "고려인 무장투쟁의 상징인 그의 일기에는 독립을 향한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1922년 일본군의 연해주 철수 이후 고려인 사회는 무장투쟁에서 교육과 문화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1931년 한민족 최초의 사범대 개교와 380여 개의 민족학교 설립, 모국어 신문 발행 등이 이 시기에 이뤄졌다. 김 관장은 "총을 내려놓았어도 민족의 정신까지 내려놓지는 않았던 문화적 전성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937년,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라는 가혹한 시련을 맞는다. 김 관장은 토굴 생활을 재현한 전시물 앞에서 "도착한 곳엔 집도 농지도 없었고, 사진조차 남기지 못할 만큼 처참한 삶이 이어졌지만, 고려인들은 결국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냈다"며 벼농사의 아버지로 불린 김한삼 교수의 업적을 기렸다.

2층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사할린 고려인 특별전'이 한창이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모국어 교육과 신문을 지켜낸 이들의 기록이다. 아울러 1958년부터 1990년까지 발간된 한글 문학 단행본 15권도 전시 중이다.

김 관장은 "사할린 고려인들은 해방을 맞고도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며 "그럼에도 모국어 교육과 신문을 지키며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문학은 그들에게 생존의 언어였다"며 "비록 1980년대 이후 쇠퇴했지만, 끝까지 한글을 붙잡았던 이들의 사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들이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이해하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한국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И мы несем пластик из дома. Сортировать совсем не сложно, а даже приятно. Понимаешь, что вносишь свой вклад, не засоряешь природу. Наш собственный пример – самый мощный инструмент воспитания, – рассказывает инструктор по физкультуре детсада Юлия Позычайло.

Пункт приема вторсырья откры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Он работает ежедневно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Емельянова, д. 14, с 9:00 до 20:00, обед с 14:00 до 15:00. От жителей за символическ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от 1 до 10 рублей за кг,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ида фракции) принимают отходы, которые образуются в обычной бытовой жизни: это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емкости из-под жидкостей и бытовой химии, пластиковые ведра, тазы, контейнеры, картонные коробки, книги, пленку-микс, изделия из стекла.

2월 1일부터 가족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새 규정 시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중요한 변경은 한 가족이 오직 하나의 주택담보대출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정이 2026년 2월 1일부터 변경돼 강화되어 러시아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거쳤다. 한 가정당 하나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고, 가정의 부부는 우대 금리로 대출을 한 건만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공동대출자가 된다. 이전까지 남편과 아내는 각각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증여성>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며, 부부는 친척을 (프로그램 요건 충족) 공동대출자로 참여시킬 수 없다.

단 가정의 소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에 부족하다면 예외가 된다.

둘째 가족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했거나 가정에

자녀 한 명이 생겼을 경우 등 두 개의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

Новые правила выдачи семейной ипотеки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с 1 февраля

Самое главное изменение — одна семья может оформить только одну льготную ипотеку.

Правила выдачи семейной ипотеки ужесточили с 1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Изменения ранее утвердил Минфин РФ.

Изменения в программе семейной ипотеки с 1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Одна ипотека — одна семья. Супруги могут оформить только одну ипотеку по льготной ставке и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тановятся созаемщиками. Ранее они могли взять два льготных кредита — на мужа и на жену.

Запрещена «донорская» ипотека. Супруги больше не смогут привлека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ребованиям программы) в качестве созаемщиков. Исключение — семье не хватает дохода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ипотеки.

Вторая семейная ипотека доступна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двух условий: погашен первый кредит; в семье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ребенок.

구슬리(수금) 국립 악기로 지정

구슬리(수금)가 2월 7일에 열리는 전 러시아 구슬리 연주자대회에서 국립 전통악기로 지정된다. 양해각서로 학교들에서 구슬리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구슬리를 문화 저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구슬리를 민속악기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민속음악의 장르적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구슬리 대회 조직위원장 키릴 보고밀로브에 따르면 구슬리가 새로이 러시아의 음악 문화를 펼쳐갈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구슬리는 가장 오래된 현악기 중 하나로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구슬리는 기원전 3천 년 -2천 년 경에 이미 유라시

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최초로 구슬리가 11세기에 루스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구슬리 악기는 훨씬 이전에 등장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구슬리가 민족 대이동시기에 루스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구슬리는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에 다시 등장하여 연주되었고, 고대 악기로 연주되는 선율을 기록하기 시작한 민속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Гусли получают статус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Гусли призн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м музыкаль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Ристалище гуслиаров России» 7 февраля. Подписание меморандума позволит преподавать гусли в школах,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нов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музыку. Такой подход может найти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культуре. Об этом пишет ТАСС.

Признание гуслей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поможет в будущем развить жанровую особенность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ценителей, но и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комитета конкурса Кирилла Богомилова, гусли могут по-новому раскрыть российскую музык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Гусли являются одним из древнейших струнных щипков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ов, инструмент уже существовал в III-II тысячелетиях до нашей э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Евразии.

Впервые гусли упоминаются на Руси в XI веке, но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музыкальный инструмент мог появиться еще раньше. Некоторые ученые склонны считать, что инструмент на Руси мог появиться в эпоху Велик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В России интерес к гуслиам стал возрождаться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ека. Этому по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этнографы и фольклористы,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записывать мелодии на старин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